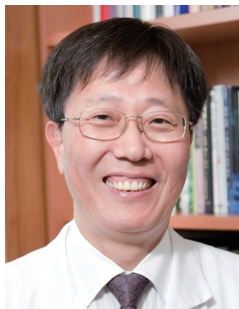


벤저민 프랭클린의 통풍

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



미국 독립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(Benjamin Franklin)은 84세이던 1790년 4월 17일, 폐에 생긴 농양이 파열해 사망하기까지 12개월 동안 방광결석으로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. 사망 후 부검에서 발견된 결석은 무게가 약 400~500g이었고 거의 방광 전체를 차지하는 크기였는데, 그의 지병인 통풍 때문에 생긴 요산결석으로 추측되었다.

40대에 시작되어 평생 프랭클린을 괴롭힌 통풍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 73세인 1779년 봄에는 외교관으로서 프랑스 왕 루이 16세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절차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격심한 발작을 겪었고, 이듬해인 1780년에는 통증발작이 6주나 계속되기도 했다.

방광결석으로 고통 받던 친형을 위해 구부릴 수 있는 요도 카테터(도뇨관)를 고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통풍에는 유전적 소인이 작용했겠지만, 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육류와 와인을 지나치게 즐긴 그의 식습관이었던 듯하다. '18세기 말~19세기 초 영국의 풀코스 정찬은 32가지의 요리가 나왔고, 그 중 16가지 정도는 각기 다른 종류의 육류 요리였다'는 기록에서 보듯 당시 유럽에는 과식하는 문화가 유행하였는데 일 때문에 자주 유럽을 왕래하던 프랭클린도 여기에 익숙해졌던 것 같다.

프랭클린의 통풍을 악화시킨 또 하나의 간접적 요소로는 납중독이 거론된다. 납은 당시 거의 모든 컵이나 그릇, 조리기구 등을 만드는 데 쓰였고, 프랭클린의 인쇄소에도 납으로 만든 활자가 많았다.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음료수나 술 속에 녹아있는 경우로, 1971년 옛날 와인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1770년대 와인들에는 식수의 20~130배의 납이 들어있었다. 와인이 통풍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 끼에 두 병 정도를 마신 애주가 프랭클린은 포르투갈에서 만든 마테이라 와인을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(1782년 9월 프랑스에 있던 그의 와인 저장고에는 369병의 와인이 있었는데 그 중 216병이 마테이라 와인이었다). 그는 발효 과정에서 브랜디를 첨가한, 맛이 세고 향이 강한 포트와인도 좋아했는데 여기에도 납이 많이 녹아있었다.

결론적으로 프랭클린의 통풍은 가족력에서 알 수 있는 통풍이 되기 쉬운 체질과 무절제한 식단과 비만, 다량의 음주, 그리고 납중독이 합쳐져 악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. 그 후 통풍 때문에 대형 결석이 생겼고, 결석 때문에 거동을 못하게 되고, 방광결석의 통증을 견디기 위해 아편용액을 과용하자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고, 마지막에는 세균감염으로 인해 폐에 농양이 생겨 파열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.

수많은 명언을 남긴 작가이기도 한 그가 생전에 출판하여 널리 알려진 <인간의 13가지 덕목> 중에는 '절제'도 포함되어 있는데, 막상 자신이 통풍을 악화시키는 과식과 음주를 절제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이로니컬하다. ●